

看護教育制度를 진단한다

現行教育制度는 바람직한가

간호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간 로 이
<메리놀 간호전문학교장>

고려해야만 한다. 한국인들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특히 성숙해짐에 따라 학업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본인은 이와같은 관점에서 각 수준의 간호교육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학교: 전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비교적 가정형편이 넉넉하고, 고등학교 과정도 이수하였다는 여러 이유에서 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또한 전문학교에서 행하는 교수법을 통하여 대다수 학생들은 성장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서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장차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현 교육제도에 있어서 대학원 과정까지의 각 단계별 진학과정에 관한 우리의 문교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수를 증가시키기 이전에 현재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이 질문의 대답에 앞서 본인은 우선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한다. 본인은 교육이란 학생이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시켜줌으로써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터주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란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한 일원으로서의 학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이 중요한 교육의 기능에 상응할 수 있게끔 제반제도는 한 수준에서 좀 발전된 다음 수준의 제도로 연속되도록 “단계적인 연속성”이

배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이다. 우리는 현 교육제도로 말미암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극이 부족하여 많은 숙련된 간호원을 잃고 있다. 전문분야, 교수법 및 행정업무에 관한 진보된 간호교육을 꾀하는, 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은 오늘날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과정 : 한국의 간호대학 수는 그 규모에 비해 필요이상으로 많고 현재는 지방에서도 대학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학교육의 목표를 명백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과 깊이에 있어서 전문학교 졸업생과 대학교 졸업생의 다른점은 무엇인가? 대학과정은 전문학교 졸업생의 편입을 가능할 수 있게끔 제편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대학교 간호교육과정에서 한가지 근본적으로 개정을 요하는 것은 현 의과대학의 예속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현재 간호과정에서의 “치료”와 “행정”의 기능은 잘 개발되어 있지만 “간호”기능에서의 우리의 독특한 기능은 이제 정립하기 시작했다. 만약 우리가 보건간호팀의 전문직 일원으로서 내원자에 봉사해야하고 동시에 의사, 행정가 팀을 교육시켜야 한다면 팀내에서의 간호의 독특한 기능에 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 교육 : 특히 서울이외의 지역에는 아직도 학생수와 내용상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대학원 교육의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현재

임상에서, 교직에서, 지역사회 건강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원을 개발시키기 위해 또다른 양상의 대학원 교육을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일적 근로자들의 편의를 도모키위하여 토요일 오후 혹은 방학기간을 고려하여 좀 더 유동성있게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또한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시간이 2년 내지 3년이상의 장기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과과정 : 전문분야의 교과과정에 유동성이 좀더 부여되고 실험시간이 좀더 많이 배정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상될 수도 있고 내원자에게 양질의 간호가 제공되도록 보장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교사로서의 임무를 발전시켜야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와 내원자 간호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도력 : 간호가 전문직 간호원에게 도전하고 자극을 주고 모든 간호분야에 자격있는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학교 졸업후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줘야 한다. 현재 한국내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체제로의 이행이 저서히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호원으로서 우리는 이런 체제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확인하고 미래의 지도자와 건강 간호사를 양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졸업생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은 변화와 조화하여 발전의 걸인차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